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구태한 상임위 운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사회는 과학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야 말로 가장 핵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최근 국회 파행과 상관없이 테헤란 벨리를 찾아가 벤처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는 등 꾸준히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과기정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 상임위를 이끌고 있는 수장, 이상희 의원을 만나 정보통신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본다.

그동안 꾸준히 정치활동을 해 오셨는데,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이 있다면

녹색 삶의 길잡이가 제가 꿈꾸는 정치철학이자 저의 바람을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이상적이고 희망찬 과학기술 미래를 꿈꾸는 저의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녹색삶이란 협동, 창조, 자립정신이라는 자연법칙을 과학과 접목시켜 우리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공해 대체에너지 개발로 에너지를 지급하고, 보건 영양 식량개발로 식량을 지급하고 쾌적한 원시 녹색환경으로서의 회복을 통해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녹색 삶의 기본 취지입니다.

약력에 보면 검정고시를 패스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때 상황은 어떠하셨는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갑자기 몸이 안좋아 학교를 그만두고 병원생활만 3년을 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병상생활 속에서도 '내일'이라는 꿈을 잊지 않아 다행히 3년 후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 대학의 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힘들었던 체험들이 지금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넉넉한 밑천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인연을 맺게된 동기는, 또 그동안 과기정위위원회 위원장 역임 시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면

16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백 여일 이상이 지나졌습니다. 과기정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모범적인 상임위를 만들어 가고자 과정위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고, 그 연속선 상에서 테헤란 벨리 벤처현장을 찾아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생산적인 국회, 열린 국회를 지향하며 상임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과정위 무파행 선언도 과정위 운영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과거의 파행국회, 방탄국회처럼 구태한

국회의 모습과 상임위 운영에서 벗어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과정위 위원들의 생각과 시대적 요구의 실천입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활동이 국회와 상관없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특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디지털과 과학의 세계에서는 전문성과 기술로 여야의 구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위는 정책중심의 상임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국회 과기정위원회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위원회의 현황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생산적인 국회", "열린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가 기존의 형식과 권위의 정형화된 상임위 운영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야 과정위 위원들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작정입니다. 특히 현장을 찾아가는 상임위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벤처기업의 경우 자금 경색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신지

현재 벤처기업들의 특성에 맞지 않는 융자방식의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들도 국내 시장보다는 세계의 첨단 벤처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공동기술 개발 협약을 통해서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합니다.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기술은 있으나 코스닥 진입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벤처가 질적인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세계 경쟁력을 갖춘 기술개발, 경영전략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내실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장래성에 기인한 미래 가치투자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유전자 분야(특히 게놈프로젝트)에 대한 과기정 위원회의 활동과 계획에 대하여

21세기 테마는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이런 고도화된 사회를 이끌려면 관련 법 체계에 대한 입법활동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과정위는 지식정보사회, 바이오공학 사회에 맞는 법적 뒷받침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점을 둘 것이며 우리가 글로벌화 시대의 경쟁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해나가는 일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판공비 내역 공개 선언이라는 힘든 일을 자청하셨는데, 그 이유는

상임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공비의 씬씀이를 매월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를 희망하는 의정활동의 작은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은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인간 뿐이지요. 누구라도 생각이 늘 깨어 있으면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국내 정보통신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혁신적인 변화의 물결이 계속될 것이고 그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21세기는 특허전쟁, 기술전쟁, 무한경쟁시대 입니다. 앞으로 총성없는 21세기 무한경쟁 전쟁시대의 시대상황 속에서 뛰어난 창의적 아이디어와 경쟁력을 가진 이들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